

노인요양보험제도 사회복지계 의견수렴 위한 참관실시

| 기사: 박숙미 (socialworker@welfare.net)

2001년 8월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이 제 시된 이후 2006년 2월 노인수발보험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앞서 1차 시범사업이 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에 걸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노인(1~5등급, 약 2050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수가 및 서비스 제공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2차 시범사업이 지난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부산북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 완도군 등 총 8개 지역에서 65세 이상 일반노인(건강보험가입) 중 최중증(1~3등급)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명칭에서 대상, 방법, 시행시기에 이르기까지 노인수발보험법안과 관련된 쟁점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김진수 연세대학교 교수, 강옥모 경상대학교 교수, 김희경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팀장, 이종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수발보험실행준비단 부장 등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전공자, 현장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18일 ~

19일 양일에 걸쳐 광주남구지역 시범사업의 참관이 진행되었다.

이번 참관은 부산북구, 안동에 거쳐 실시되는 세 번째 지역으로 요양(재가)시설 방문, 시범지사방문, 방문조사 참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서비스 제공기관과 수발서비스 이용자를 직접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듣는 자리로 그 의의가 매우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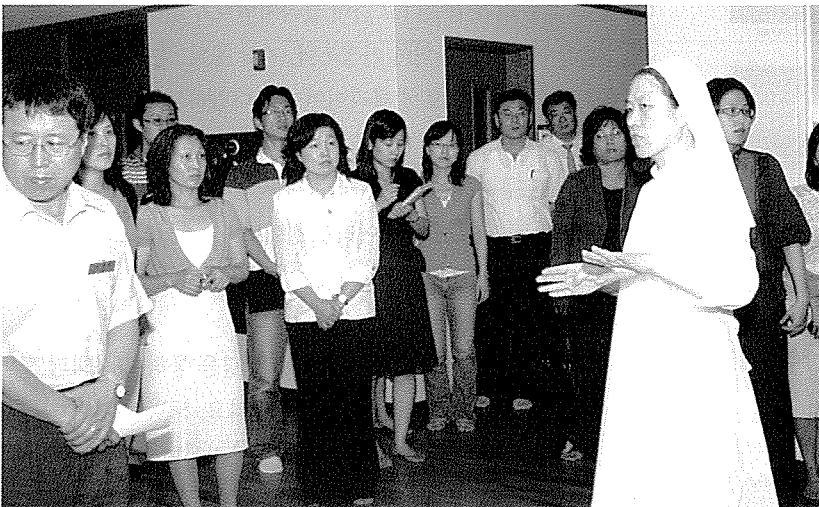
인지능력에 따른 등급판정 산정 고려되어야

광주남구에 위치한 성요셉요양원은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차 시범사업에도 참여하는 입소시설로 수발보험제도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 최근 시설을 신축하였다. 김명자 원장은 “수발보험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1인실, 다인실 등 시설을 신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 김명자 원장은 “1차 시범사업의 경우 1~3급 등급판정 산정에 있어 인지능력 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4, 5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 인지능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있는데 오히려 1등급을 받은 외상 어르신 보다 손이 더 많이 가는 것이 사실”이라며 등급 산정에 있어 인지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현재 요양시설이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들의 손길이 미치는 부분이 많은데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 수급자가 아닌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역할 중 많은 부분 직원들의 역할로 돌아올 것”이라며 시설입장에서의 어려운 점을 토로하였다.

본인 부담액 적정성 논란

75세 외상 할아버지를 혼자 수발하고 있는 김모 할머니는 지역의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직접 방문, 홍보를 통해 신청하게 되었다. 매주 1회 4시간에 걸쳐 신체수발을 받고 있는 김모 할머니는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맡긴다는 것이 처음에는 스스로 납득



▲ 참관단들이 광주남구에 위치한 성요셉요양원을 방문, 시설에 대한 소개를 받고 있다.

되지 않았지만 막상 수발서비스를 받게 된 후에 조금씩 움직임이 가벼워지는 남편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며 “그러나 중증 환자의 경우 수발이 필요한 내용과 시간은 길지만 개인 부담 부분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현재 수발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제공되며 이용자 본인 부담액은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이용비용의 20% 수준이다. 즉 월 한도액 초과비용이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100%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다.


1등급인 재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은 975,120원이며 즉 1일 4시간씩 2회를 이용했을 경우 13일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 추가로 제공받게 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계 관심과 참여 요구

이처럼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들은 시범사업 종료 후 연구 결과보고서를 통해 취합, 보고 될 예정이며 2008년 7월 본격시행에 들어서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 수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회복지계의 의견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역할을 다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시범사업의 예처럼 사회복지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연세대학교 김진수 교수는 참관을 마치고 “시범사업이라는 자체 한계도 있을 수 있지만 좀더 노력했다면 나아졌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이는 부분도 있다”며 “그동안 정책, 제도에서 접근하여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번에 현장을 보면서 사회복지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하반기 학계와 관련 단체의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수발보험실행준비단 이종희 부장은 “의료계와 간호계 등 타 직종의 관심은 높은 반면, 사회복지계의 참여와 관심은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며 사회복지계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행된다면 수발관리요원 등에서 사회복지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10월 중 관련 토론회를 준비 중에 있으며 한국보장학회에서도 춘계학술대회 기획주제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선정한 상태이다. 



▲ 수발관리요원이 직접 수발대상자를 방문하여 수발인정·육구조사표 작성을 위한 신체 기능을 알아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현황

이번에 참관을 마친 광주남구의 경우 수발인정 신청은 1,257건으로 이는 광주시 남구 65세 이상 수발인정신청대상자 17,309명의 7.26%에 해당한다. 이중 1,228명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차 시범사업 수발대상자인 3등급이상 해당자가 398명(30.7%)에 이르렀다. 시설 희망자는 39% 155명, 재가 희망자 61% 243명으로 (중복서비스 신청자 포함) 시설입소 155명 가정봉사원파견센터 177명 주야간보호 36명 단기보호 6명 방문간호 26명 방문목욕 34명이 각각의 서비스를 희망하였다.

광주남구의 경우 타 시범 지역과 비교하여 2차시범사업 대상자(3등급이상)가 많은 것은 아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관계자는 “2차 시범사업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수발관리요원 양성과정 교육수로, 수발등급판정위원회 구성, 수발인정 신청서 발송 및 안내를 마쳤으며 통장회의 및 기관, 단체 등을 통해 수발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유관단체의 정기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